

# 그린 '무적'... 새 전설 쓴 넬리 코르다

2021년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인 넬리 코르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4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코르다는 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리크(파72)에서 열린 T-모바일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리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에게 3개 홀 남기고 4홀 앞서는 완승을 거두고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4억 원)를 받았다. 투어 통산 12번째 우승이다.

지난 1월 LPGA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에 이어 3월에는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포드 챔피언십에서 거꾸 우승한 코르다는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플레이 방식을 혼합해 열린 T-모바일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완성했다. 3월부터는 3주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무서운 기세를 이어갔다.

4개 대회 연속 우승은 2008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이후 16년 만에 나온 기록이다.

LPGA 투어 역사상 4연승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코르다를 비롯해 오초아, 미키 라이트(미국), 낸시 로페즈(미국), 안



T-모바일 매치플레이 결승전서  
3개 홀 남기고 매과이어에 완승

LPGA 투어 4개 대회 연속 기염  
역대 4연승 이상은 오초아 등 5명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가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새도 크리크에서 열린 T-모바일 매치플레이 결승전에서 아이언샷을치고 있다. 코르다는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4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우승 트로피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는 코르다(작은 사진). 라스베이거스 AP-연합뉴스

니카 소렌스탐(스웨덴)까지 5명이 됐다. 로페즈는 1978년, 소렌스탐은 2004~2005년에 걸쳐 5연승을 기록했다.

이번 대회는 1~3라운드 스트로크 플레이에 이어 8강부터 결승까지는 매치 플레이로 진행됐다. 경기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코르다의 독주가 계속된 것이다.

전날 4강전에서 한국의 안나린을 꺾고 결승에 오른 코르다는 전반 9개 홀을 지난 뒤 3홀 차로 앞서가며 기선을 잡았다. 10번 홀(파4)에서는 세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 위에 올린 뒤 먼 거리 파 퍼트까지 성공해, 보기에 그친 매과이어와의 격차를 4홀까지 벌렸다.

코르다는 12번 홀(파4)을 버디로 따내 5홀 차로 앞서갔지만 매과이어에게 13번 홀(파3)과 14번 홀(파4)을 내줘 3홀 차로 추격당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한 코르다는 경기를 더 오래 끌지 않았다.

매과이어가 15번 홀(파4)에서 세 번만에 공을 그린 위에 올리며 고전하는 사이 코르다는 두 번째 샷으로 버디 기회를 만들었다. 매과이어는 파 퍼트가 빗나가자 패배를 인정했고 코르다는 3개 홀을 남기고 15번 홀에서 승리를 확정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평소답지 않았다” SD 김하성 2실책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8일(한국시간) 두 개의 실책을 범했다.

김하성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유격수로 나서 6회 말 이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평범한 땅볼 타구 때 1루수 키를 훌쩍 넘기는 악수구를 했다.

8회 말 수비에서는 병살 기회에서 상대 주자를 태그했으나 이 과정에서 글러브 속에 있던 공이 빠져나가 주자를 아웃시키지 못했다.

김하성이 바리크 진출 이후 경기에서 실책을 2개나 기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게다가 실책 2개가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팀이 2-3으로 역전패하는 빌미가 됐다.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8일(한국 시간) 열린 MLB 정규리그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경기에서 점프하며 송구를 하고 있다. USA투데이-연합뉴스

경기 후 김하성은 실책 2개에 대해 “어쩔 수 없다. 지나간 것인데...”라며 “내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첫 번째 실책에 대해 김하성은 “정후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맞물리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내 잘못이다”고 자책했다. 김하성이 1루로 던진 공은 손에서 미끄러진 듯 1루수를 훌쩍 넘었다. 두 번째 실책에 대해서는 “일단 포구가 잘못됐는데 주자가 밀고 오면서 (공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돌아봤다.

김하성은 6회 초 팀이 2-0으로 앞서가는 타점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날 실책 2개로 빛이 바랬다. 그는 “내일도 경기가 있고 앞으로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스스로 격려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앙리·드로그바 비켜! 손흥민 '3번째 10골·10도움' 눈 앞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31·사진)이 프로 통산 3번째 '10골·10도움' 달성을 눈앞에 뒀다. 한 시즌에 10골 이상 10개 이상 어시스트를 올린다는 것은 정상급 공격수들의 희망사항이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4 EPL 32라운드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7분 마키 판더펜의 결승골을 도와 토트넘의 3-1 승리에 힘을 보태며 토트넘을 리그 4위로 이끌었다. 이 도움으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누적 공격포인트를 15골 9도움으로 늘렸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3경기 무패(2승 1무)를 이어간 토트넘은 승점 60(골 득실 +20)으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

스리그(UCL) 진출 마지노선인 4위로 올라섰다. 한 경기를 더 치른 5위 애스턴 빌라(승점 60·골 득실 +17)와 승점은 같지만 골 득실에서 앞섰다. 손흥민은 팬 투표로 뽑은 '맨 오브 더 매치(MOM)'로 선정됐다.

이제 손흥민은 남은 7경기에서 1도움만 올리면 통산 3번째로 10골·10도움을 달성한다. 손흥민은 2019~20시즌 11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EPL에서 10골·10도움 고지에 오르는 역사를 썼다. 이어 2020~21시즌에도 17골 10도움을 작성, 2년 연속 두자릿수 득점·도움을 기록했다.

한 시즌에 득점과 도움 모두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건 특급 공격수들도 달성하기 버거운 기록이다.

올 시즌 EPL에선 올리 왓킨스(애스턴 빌라)가 18골 10도움으로 현재까지 유일하게 10골·10도움을 돌파했다. EPL 역사

를 통틀어서도 손흥민처럼 2차례나 10골·10도움을 작성한 선수는 흔치 않다.

데니스 베르캄프(1997~98, 1998~99), 티에리 앙리(2002~03, 2004~05·이상 아스널), 크리스 서턴(1993~94 노리치 시티, 1994~95 블랙번) 등 당대의 특급 스타들이 손흥민과 같은 고지에 올랐다. 10골·10도움을 3차례 이상 기록한 선수는 5명에 불과하다.

골잡이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디디에 드로그바(첼시)가 3차례씩, 에릭 칸토나(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랭크 램퍼드(첼시)가 4차례씩 이 기록을 달성했다.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역대 최다 5차례나 한 시즌 10골·10도움을 기록했다.

손흥민이 1도움만 더 올린다면 베르캄프, 앙리를 넘어 드로그바, 살라흐와 어깨



를 나란히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들은 골을 넣는 데에 집중하고, 2선 공격수나 미드필더들은 전방의 골잡이들을 지원한다. 둘 다 능숙하게 해내는 선수는 찾기 힘들다. 스스로 마무리를 지을 킬러능력을 갖췄고 동료에게 골 찬스도 안길 줄 아는 손흥민은 특별한 공격수다.

이날 손흥민은 최전방에 배치됐지만 상대 견제가 자신에게 집중되자 동료의 플레이를 살리는 데에 집중했고 결국 결승골을 도왔다. 손흥민은 이날 16호 골도 올릴 뻔했으나 골대 불운에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40분 브래넌 존슨의 패스를 받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